

2-8-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로마서 11:33-12:2

말씀 제목: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분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의 의논자도 아무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받겠느냐고 그는 증거하면서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롬 12:1)

물론 자녀들이 주의 첫 날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도 몸을 드리는 일이겠지만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 놓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십자가 앞에 걸어 나가시어 그분의 몸을 십자가 위에 누우심으로써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몸을 세상 죄인들을 위해 산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하나님 자신의 몸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 산 제물로 드리신 분께서 그분께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신 것처럼 우리 몸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롬 12:2)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요일 2:15-20)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한 두 시간 정도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설교 말씀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을 예배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멀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 되셨으며 그는 멀시받았고 어느누구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으며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된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합당한 예배를 드리셨던 것입니다(사 53:3-5).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